

한덕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 합쳐야 지금의 위기 극복”

〈대통령 권한대행〉

4대그룹과 경제안보전략 TF

“투자·혁신 저해 장애물 걷어낼 것
기업, 과감한 도전·혁신 보여주고
주요국과 대한민국 동맹 강화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계 총수들에게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오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네트워크를 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오고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각 분야에서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

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으로 4월3일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이제 앞으로의 협상,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상위기 극복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들도 국의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계 지원 등 지원책의 조속한 마련, 대미 협상 총력 경주 등을 요청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덕수 권한대행 “국가에 부정적 영향”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행사 안전 의결

“부작용 최소화 하는 대안 찾아야
모든주주 이익 공정 대우하는 의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전을 의결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



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

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요구안이 재가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받게 되면 법률안은 공포될 수 있다.

/서예진 기자

LG엔솔, 美얼티엄셀즈 3공장 3조에 인수

GM과 합작... 캐즘돌파 위한 전략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과의 합작 배터리 생산법인인 얼티엄셀즈 3기의 건물 등 자산 일체를 취득한다고 1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3조 561억원이다. 이번 투자는 신규 증설 투자 부담 최소화과 기존 설비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계약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실제 집행하는 비용은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절반”이라며 “집행 비용은 올해 초 발표된 시실투자에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투자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리밸런싱 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한다. 얼티엄셀즈 3기 공장은 현재 건물 공사를 마치고 장비반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사는 기존 단독 공장 내 전기차 생산라인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전환한다.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을 활용해 ESS 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이로써 미국 홀랜드 공장 증설 라인을 ESS로 전환해 건설 예정인 애리조나 ES S 공장 대신 1년 빠르게 북미 현지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ESS 전환을 통해 라인 운영 효율화가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수출 582.8억 달러... 전년비 3.1% 증가

산업부, 불확성에도 3월 수출 ‘선전’
IT 전품목 8개월만에 동시 플러스

3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전 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중 2위 실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5% 증가한 26억5000만달

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수출이 늘었다. IT 전 품목 수출이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에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에 따라 11.9% 늘어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 컴퓨터(+33.1%)는 15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13.8%)는 2개월 연속 증가했고, 디스플레이(+2.9%)는 작년 8월부터 7개월간 지속된 감소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제외)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LG 핵심계열사, 6월부터 글로벌 완성차 테크데이

》1면 ‘전장 키우는 JY...’서 계속

6월 현대차·기아, 7월 日 혼다 방문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LG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오는 6월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테크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계열사 수장들은 오는 6월 현대차·기아를 시작으로 7월에는 일본 혼다 본사를 방문해 자체 기술력을 선보일

방침이다. 권봉석 LG그룹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양대산맥인 삼성과 LG가 전장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것은 그 잠재력 때문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와 자율주행 전환에 속도를 높이면서 전장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에널리틱

스에 따르면 세계 전장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00억 달러(한화 약 552조4800억원)에서 2028년 7000억 달러(한화 약 966조840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는 차량에서 모든걸 가능케 하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삼성과 LG의 전장 사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